



‘스위스 스탬프북’ 이벤트, 전 세계 40 개국 제치고 한국이 1 등 당첨.

스위스정부관광청·레일유럽, 스위스 스탬프북 이벤트 성료

2017년 연말까지 진행한 ‘스위스 스탬프북’ 이벤트 당첨자 발표, 전 세계 당첨자에게 경품 전달
실제 스위스 트래블 패스 이용해 스위스 여행한 40 개국의 2580 여명 대상

총 122명 추첨 통해 선정, 3000 스위스 프랑 상당의 스위스 여행 패키지 1 등 당첨자는 한국인
2018년 개정판도 곧 배포 예정, 다양한 할인 쿠폰 및 스위스 그랜드 트레인 투어 등 정보 수록

스위스정부관광청,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 레일유럽이 지난 2017년 12월 말까지 진행한 ‘나의 스위스 여행 스탬프북(이하 스위스 스탬프북)’ 이벤트의 당첨자를 발표하고, 전 세계 각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했다. 스위스 여행 패키지 경품 1 등의 주인공은 한국인에게 돌아갔다.

해당 이벤트는 스위스 스탬프북에 수록된 설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이용해 스위스 여행을 한 전 세계 여행객 대상으로 진행됐다. 약 9개월간 전 세계 40 개국의 2580 명의 여행객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1 등에서 5 등까지 총 122 명이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가운데, 스위스 항공권을 비롯해 호텔 숙박권, 스위스 트래블 패스 1 등석, 산악 열차 티켓 등 약 3,000 스위스 프랑 상당의 스위스 여행 패키지 경품 1 등은 한국인이 당첨됐다. 그 외 2 등 10명에게는 몬다인 및 SBB 고타드 스페셜 에디션 손목시계가, 3 등 6명에게는 마무트 백팩이, 4 등 6명에게는 빅토리아록스 백팩, 5 등 100명에게는 스위스 치즈 마케팅 고급 타월이 전달됐다.

스위스 스탬프북 2018년 개정판은 올해도 배포 예정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자는 패스 구입과 함께 무료로 책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역시, 스위스 여행에 도움이 될 다양한 할인 쿠폰과 함께 1,280 km의 파노라마 철도를 달리는 스위스 그랜드 트레인 투어에 대한 이동 정보 및 스탬프 찍을 장소, 운영 시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스위스 스탬프북 이벤트 참여는 올해부터 온라인 설문으로 변경된다.

1 등 당첨자의 경품 전달을 위해 직접 스위스에서 방한한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의 안드레아스 네프(Andreas Nef) 마켓 매니저는 “작년 중국을 제치고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가장 많이 판매된 곳이 한국이었던 만큼 스위스를 여행하는 한국인의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스위스 곳곳을 누비는데 꼭 필요한 올인원(all-in-one) 티켓이라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와 함께 스위스 스탬프북이 여행을 추억할 나만의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혜택을 계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기차 뿐 아니라 버스, 유람선 등 스위스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자 용 패스로 90 개가 넘는 스위스 마을과 도시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스위스 전역의 500 여개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스위스 스탬프북은 손 안에 쏙 들어오는 A6 사이즈의 여행책자로 레일유럽 한국 총판 대리점인 서울항공(02-755-1144), RTS(02-3704-2800), 하나투어(1899-5042), 모두투어(02-728-8642), 내일투어(02-6262-5989), 코레일(02-3149-2024), FIT Ruums(02-6410-8170)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 Dongbu Dadong Bldg., Da-Dong, Jung-Gu, Seoul, Rep. 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